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계시와 성경.

3차 세션, 신을 아는 것과 성경 이야기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신과 성경 이야기 알기 및 신과 우리의 신학 알기입니다.

우리는 계시록과 하나님의 말씀 교리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그 후에, 글썬요, 여전히 성경 소개의 이 부분을 다룹니다. 우리는 Peter Jensen의 도움을 받아 역사적 소개를 했고, 지금은 Christopher Morgan의 Christian Theology, Knowing God and the Biblical Story의 도움을 받아 성경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타락, 구원, 완성에 대한 성경적 에피소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창세기 1:1). 물질, 공간 또는 시간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영원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브루스 월트키는 창세기 1:1에서 2:3까지를 소개하면서 창조 기록은 창조주 하나님의 송고함, 권능, 위엄, 지혜를 강조하고 언약 공동체의 세계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매우 정교한 표현이라고 인용합니다.

월트키의 창세기, 주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주인공인 하나님은 창조하고, 말하고, 보고, 분리하고, 명명하고, 만들고, 임명하고, 축복하고, 끝내고, 거룩하게 하고, 쉬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태양, 달, 물, 나무, 동물 또는 다른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신이 그들을 창조하고, 그들은 신에게 복종한다. 창조물은 신도 아니고 신의 일부도 아니다. 그는 절대적이며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창조물은 그에게서 존재를 얻었고, 그를 지지자로서 계속 의지한다.

사도행전 17:25~28을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하며, 초월적이고, 주권적이며,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가진 창조주. 왕처럼, 그는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의지를 행사 하여 무에서 유를 존재하게 합니다.

창세기 1:3, 히브리서 11:3. 그는 모든 창조물에 대한 그의 권위를 더 나타내어 원소들을 부르고 이름을 붙였습니다(창세기 1:5). 초월적인 주권적 창조주는 또한 인격적입니다. 창조의 각 날마다, 하나님은 모든 세부 사항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피조물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그의 세계를 만드십니다. 극적인 방식으로, 여섯째 날에, 그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여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공동체에 속하고 창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DA 카슨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인용문, 우리는 놀라운 존엄성을 부여받았으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 수 있는 심오한 능력이 심어졌습니다. 인용문 달기 카슨, 하나님의 질식, 부제 기독교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맞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다른 창조물과 구별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확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선하시며, 이는 그의 창조물의 선함에 반영되고, "하나님은 그것이 선한 줄을 보셨다"는 꾸준한 반복에서 강화됩니다.

창세기 1:10, 12, 18, 21, 25. 여섯째 날 창조는 31절에서 매우 좋다고 묘사됩니다. 창조의 내재적 선함은 영과 물질 사이에 근본적인 이원론, 즉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물질적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데, 이는 또한 빛, 땅, 식물, 동물,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들에 대한 그의 관대한 공급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들은 인류의 이익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번식할 수 있는 다산성, 그리고 지구의 풍부한 공급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한 데서 정점에 도달하지만, 창세기 1:1에서 2:3은 하나님의 안식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끝내시고, 쉬시고, 축복하시고, 그 날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창조와 완성의 축하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나타내시며, 이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살고 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에덴 동산을 제공하십니다.

신은 인용문에서 남자를 형성하고, 정원을 심고, 남자를 그곳으로 이동시키고, 그와의 관계 조건을 설정하고, 그를 위한 도우미를 찾고, 그것이 여자로 절정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존 C. 콜린스의 창세기 1~4장이 그 인용문의 출처입니다. 남자는 땅의 먼지로 형성되었지만 먼지 이상입니다.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직접 나옵니다(창세기 2장 7절). 정원을 조성하고 사람을 그곳으로 옮기면서 창조주이자 언약의 주님은 인간이 그분, 서로, 동물, 땅과 조화로운 관계를 즐길 수 있는 즐겁고 신성한 공간을 제공하십니다. 월트키는 "에덴 동산은 성전 정원이며, 나중에 성막에 표현된다"고 말합니다. 월트키, 창세기 85쪽.

따라서 정원은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자신의 형상대로 선택하고 놀라운 특권과 중요한 책임을 지닌 에덴 동산에서 창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방해받지 않는 관계, 서로에 대한 친밀한 즐거움, 창조물에 대한 위임된 권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사는 조건을 정하시고 은혜롭게도 단 하나의 금지 사항만 제시하십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락은 우리의 다음 하위 범주입니다. 슬프게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타락합니다(창세기 3장).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실성, 주권, 선함에 의문을 제기하는 유혹자로 시작됩니다.

유혹자는 교활하여 여자의 주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적 관계에서 돌립니다. 6절에서 8절에서 타락 이야기의 중심 장면이 절정에 이릅니다. 치명적인 순서는 3장 6절에서 빠르게 묘사됩니다. 그녀는 보고, 취하고, 먹고, 주었고, 결국 그는 먹었습니다.

웬햄은 6절에서 8절 중간에서 관찰하고, 그는 먹고, 서사에서 핵심 동사인 먹다를 사용하고, 여자가 먹을 것을 기대하는 부풀려진 기대 사이에 위치합니다. 과일은 먹기에 좋고, 눈을 즐겁게 하며, 실제 효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눈이 열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몸이라는 것을 알고,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고든 웬햄, 창세기 1~15장, 단어 성경 주석. 조금 더 말하고 싶습니다. 웬햄은 단어를 세고, 그는 먹었다는 것이 핵심이며, 먹는 데 대한 여자의 과장된 기대와 파괴적인 실제 효과를 구별합니다.

대조는 두드러진다. 금지된 열매는 유혹자가 약속한 것을 전달하지 않고 선하고 진실한 언약의 주님이 경고한 어두운 새로운 현실을 가져온다. 인간의 반역에 대한 이 초기 행위는 신성한 정의를 가져온다.

“그들은 먹음으로써 죄를 짓고, 그래서 먹는 것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죄로 이끌었고, 그래서 그에게 지배당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세상에 고통을 가져왔고,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고통스러운 수고를 겪었습니다.” 앨런 로스, 창조와 축복, 148쪽, 통찰력 있는 연구.

그들의 죄의 결과는 적절하고 파괴적입니다. 부부는 즉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3:7.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됨을 느끼고, 심지어 어리석게도 그분에게서 숨으려고 시도합니다(8-10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두려워합니다(9-10절). 서로에게서 소외됨은 또한 여자가 뱀을 비난하고, 남자가 여자를 비난하고, 암시적으로는 하나님까지도 비난하면서 드러냅니다(10-13절).

고통과 슬픔도 뒤따른다. 여자는 출산 시 더 큰 고통을 겪는다. 남자는 해충과 잡초가 있는 땅에서 식량을 재배하려고 애쓰며, 둘 다 관계에서 불협화음을 발견한다(15-19절).

더 나쁜 것은, 그 부부는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서 추방당합니다(22-24절).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으면 얼마나 바랐을까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2:17).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 그들은 즉시 쓰러져 심장마비와 같은 것으로 죽지는 않지만, 죽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고, 그들의 몸도 점진적인 쇠퇴를 경험하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육체적 죽음으로 이어집니다(3:19). 가장 파괴적인 것은 이러한 결과가 아담과 이브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도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림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기 자신, 서로, 그리고 창조물과의 모든 인간 관계에 혼란과 소외를 가져온다. 창세기 4:11의 직접적인 맥락과 스토리라인은 이 우울한 새로운 현실을 강조한다. 4-7에서 하나님은 카인에게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으며 그 욕망은 카인에게 있지만, 그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고 경고한다.

슬프게도, 카인은 조언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동생 아벨을 죽인다. 카인은 그 결과 신의 저주를 받고 땅에서 멀어지고 신의 면전에서 추방된다. 창세기 5장은 신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축복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이 장은 에녹과 노아를 언급하여 희망을 주지만, 반복되는 “그는 여덟 번이나 죽었다”는 구절로 죽음의 영역을 냉정하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6장은 죄의 확장 and 심화를 명확히 하는데, 죄는 거대하고, 만연하고,

지속적이며, 특징적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홍수로 인류를 적절하게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9. 홍수 후에 하나님은 창조의 축복과 명령을 다시 강조하시고 언약의 약속을 제시하십니다. 그런 다음 창세기는 바벨탑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봉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보다는 스스로의 이름을 떨치고 영향력을 늘리려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1:9. 창조. 타락.

이제 성경 이야기 속의 구원과 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다행히도 신은 그러한 우주적 반역 때문에 인간을 완전히 근절하지 않고 대신 은혜롭게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는 우주에서 인간을 회복하는 과정을 시작하는데, 특히 인간을 완전한 형상을 지닌 자로 회복하여 우리가 항상 갈망해 온 영광, 정체성, 사명에 참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와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1-3.

17:7.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어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심. 12:3.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왔고, 나중에 야곱이 나왔는데,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그분의 백성 12지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루신 내용입니다. 모세, 큰 재앙, 극적인 탈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을 그의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며

,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친 후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들이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을 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기드온, 드보라, 삼손과 같은 판사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역사는 세대를 거둡니다. 평화를 경험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평화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인간 왕을 주십니다. 먼저 사울, 그다음 다윗, 그다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 다윗 아래에서 왕국은 상당히 성장합니다.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의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왕조로 만들고 그들 중 한 사람의 왕좌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현존이 드러나는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옳은 일을 했지만, 또한 주요한 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이로 인해 왕국은 북쪽과 남쪽 왕국, 각각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언약의 충실함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에게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올 심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와 그의 선지자들에 대해 거둡니다. 반항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그는 기원전 722년에 열 지파의 북왕국을 아시리아에 포로로 보내고, 기원전 586년에 유다와 베냐민의 두 지파의 남왕국을 바빌론에 포로로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이사야 9:6, 7, 이사야 52:13-53:12).

하나님은 70년 후에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그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예레미야 25:11, 12). 그리고 그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이것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두 번째 성전을 지었지만,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그분에게서 돌아서는 것으로 끝납니다(말라기).

400년 후, 하나님은 약속된 메시아, 고난받는 종, 이스라엘의 왕, 세상의 구세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어 완전한 신성을 유지하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는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성공적으로 물리치며 메시아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그의 메시아 공동체의 새로운 지도자로 택하고 투자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역할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이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따르며 죄 없이 남으셨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지만 유대인, 종교인, 정치 지도자들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메시아 개념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 믿음, 전통을 훼손합니다.

산헤드린이 불법 재판에서 예수를 정죄하면서 반대가 커진다. 국가가 로마 제국에 점령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들의 강력한 적,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야 했고, 그는 예수가 무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과 군중의 압력에 빌라도는 어쩔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수, 무고한 자, 의로운 자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는 이 비열하고 비열하게 사악한 행위에서 희생자로서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이 죽음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임을 강조합니다.

예수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고, 그는 그렇게 하는 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죄인을 대속자, 승리자, 희생제물, 두 번째 아담, 구속자, 평화 조성자로서 구원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 상황, 집단 환경에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부활을 통해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죄와 죽음을 물리치고, 그의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의 백성의 미래 부활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라고 지시합니다.

그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하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오순절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신약 백성인 교회를 형성하는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 영은 교회가 민족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능력을 부여합니다.

초기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 떼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행 2:42). 초기 교회는 전도에 참여했습니다(38~41절). 구원의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제자 양성에 전념했으며,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교제에 전념했습니다(42~47절).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알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는 또한 사역에 참여합니다(42~46절),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교회는 예배에 적극적입니다(46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개적으로 함께 모이고, 사적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베풀고,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박해를 받지만 복음은 계속 퍼집니다.

일부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은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순환은 계속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오류를 바로잡고, 신자들에게 사랑, 연합, 거룩함, 진실 안에서 살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도 구원에 대해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며, 그의 가족으로 입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관대한 사랑으로, 그의 영광을 위해 구원하십니다.

성경 이야기에 따르면,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이제 완성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은 자신이 시작한 것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 돌아와서 정의, 평화, 기쁨,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왕국은 왕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통치입니다. 왕국은 현재의 현실이자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미래의 약속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단계적으로 가져오십니다.

그것은 그가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의 공적 사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마태복음 12:28, 마태복음 13:1~50). 예수께서 가장 큰 권능의 자리인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올라가실 때, 왕국은 확장되고(에베소서 1:20, 21), 수천 명이 사도들의 전파를 통해 그 왕국에 들어갑니다(사도 행전 2:41, 47). 왕국의 충만함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때,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태복음 25:31).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어 믿는 자들을 왕국의 마지막 단계로 초대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으로 추방하실 것입니다(마태복음 25:34, 41). 완성과 이와 관련된 진리를 묘사한 고전적인 구절은 요한계시록 20-22장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22

장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으로 시작하여 새로운 창조의 선함으로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정원 성전에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하늘, 새 땅, 도시, 정원, 성전에서 그분의 언약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단번에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입니다.

죄는 정복당하고, 정의가 승리하고, 거룩함이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방해받지 않고, 왕국은 실현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적 화해 계획이 실현되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언어로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일부로 마귀와 그의 악령들을 불못에 던지셨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소멸되지 않고, 인용하자면 밤낮으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10, 사탄과 악마들은 회복되지 않고 지옥에 가서 마땅한 형벌을 받고, 영원히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세상이 결코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용하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무자비한 로마 황제들만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다. 다니엘 12장 1절, 요한계시록 14:10과 11절, 요한계시록 21:8과 21:27을 보십시오.

장엄하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3과 7. 그것은 그들에게 위로를 가져다줍니다: 더 이상 고통, 죽음 등이 없습니다.

4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5절. 선포하시되, 이루어졌느니라, 6절. 그때 하늘은 영광스럽고, 다국적이며, 거룩한 완벽한 성전으로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27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지니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22:1~5. 하나님은 마땅히 받아야 할 예배를 받으시고, 인간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을 받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현실을 최대한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교리로 구성된 성경 이야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개요는 DA 카슨의 "거기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는 것"을 참조하세요. 하나님, 성경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신학을 아는 것.

성경 이야기는 신학에서 우리의 주제를 형성하고 틀을 잡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완성은 신학의 순서와 주제를 틀을 잡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주제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창조, 인간, 죄, 예수와 그의 구원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의 구원에 적용하는 성령, 그리고 교회와 미래.

성경 이야기는 또한 우리 신학의 내용을 형성하고 틀을 잡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이야기와 세계관에 따라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 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 아래에서, 따라서 그분의 말씀 아래에서 겸손한 청취자로서 성경을 읽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신학을 추구합니다. 성경 이야기의 성경적 진리가 어떻게 신학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촉진하고 명확히 하는지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신학, 성경 이야기의 윤곽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각각이 신학을 추구하는 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

여기 우리의 제목이 있습니다. 신, 그의 계시, 그리고 우리의 신학. 창조와 우리의 신학.

인류와 우리의 신학. 죄와 같은 것.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학.

구원과 동일. 우리 신학 속의 성령. 우리 신학 속의 교회.

그리고 우리 신학의 미래. 신, 그의 계시, 그리고 우리의 신학. 신의 본성은 모든 진리의 기초이며 우리 신학에 대한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신의 무한함은 그분만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학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그의 관대한 자기 계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의 은혜로 그를 알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은 그의 자기 계시가 진실을 전달하고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개인적 본성은 그분에 대한 지식이 또한 관계적임을 상기시켜 주며,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신학이 전체론적임을 명확히 하며,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 안에서 행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 신학이 자기 몰두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향해 외적으로 지향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참된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11:33~

36.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그분을 반영하며 또한 우리의 신학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은혜롭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유롭게 시작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진실하며, 하나님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지 충실하게 나타냅니다.

그것은 통일성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전달되기는 하지만, 신이 자신, 인간, 그리고 삶에 대해 전달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이며, 신과 그의 방식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은 명제적이고, 진술이나 주장을 하며, 신, 인간, 삶, 역사, 구원에 대한 진실을 밝힙니다. 우리는 신의 자기 계시를 받는 자이므로, 그는 인간의 맥락, 문화, 언어를 사용하여 소통하기 때문에 유추적입니다. 유추적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신의 자신에 대한 지식과 정확히 같지 않으며, 어떤 면에서 신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싫어해서 우리가 그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추적 입니다 . 하나님이 특정한 계시된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계시는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 제한된 정보만 계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입니다 . 그것은 역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에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때문에, 세계의 종교들 중에서 독특합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 내에서 점진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 공개를 점진적으로 확장합니다. 따라서 신학은 신성한 주도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계시된 진리의 내용과 통일성에 의지하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요구하고, 철저히 할 수 없으며,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연구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계시는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맥락에서 주어지지만,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는데, 창조는 그분을 창조주이자 주님으로 증거합니다(시편 19:1-6, 로마서 1:18-32). 또한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도덕법은 인간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로마서 2:12-16). 그러므로 우리의 신학은 다양한 지적, 문화적, 직업적 세계를 포괄합니다. 일반 계시와 일반 은혜는 명백히 비기독교적 일과 문화조차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어떤 증거를 포함할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신학은 “우리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발견하는 정의, 지혜, 진실, 아름다움의 일면을 인식하고 기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복음과 문화적 참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은 동료와 이웃의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감사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티모시 켈러와 캐서린 리어리 알스도프.

모든 좋은 만남은 당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연결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더 명확하게 자신과 언약 관계를 전달하십니다. 그는 역사적 행위, 예를 들어 출애굽, 신의 말씀, 예를 들어 십계명, 그리고 거룩함, 사랑, 정의가 자신의 성격을 반영하는 언약 백성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19:5, 6, 요한계시록 19장, 레위기 19장, 죄송합니다. 1~18장.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의 성육신, 죄 없는 삶, 가르침, 그의 왕국의 선포, 기적, 십자가 처형, 부활, 승천, 통치, 약속된 재림에서 가장 온전히 자신을 계시합니다(요한복음 1:1-18, 히브리서 1:1-4). 하나님은 또한 영감을 받은 선지자,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해석하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합니다.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가장 접근 가능한 형태입니다. 시편 19:7-14, 마태복음 5:17-20, 요한복음 10:35, 디모데후서 3:15-4:5, 베드로전서 1:22-25.

이런 이유로 신학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잠언 1:1~7). 신학은 우리 자신을 창조주와 그의 세계를 그의 자기 계시에 의존하여 알고자 하는 피조물로 보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진실되고 권위 있는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전달되며, 신학에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또한 우리 신학의 구성 요소로 기능합니다.

무한하고, 스스로 존재하며, 인격적이고, 주권적이며, 거룩하고, 선하신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선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보았듯이 꾸준한 반복으로 입증되며, 하나님은 그것이 선하다고 보셨습니다. 선함은 창조의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매우 좋다고 말씀하셨을 때 강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31.

하나님께서 빛, 땅, 식물, 동물을 관대하게 공급하신 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 주신 축복이며, 하나님을 알고, 결혼하고, 번식하고, 일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은 신자들을 위해 선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고, 다른 사람들의 선을 창조하십니다. 창조는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과 능력을 증거합니다.

진실, 선함, 아름다움, 그리고 평화가 풍부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 모든 창조물, 모든 생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우리 신학 속의 인류.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또한 우리의 신학을 이끈다. 피조물로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유한성의 표식을 지닌다. 오, 인간으로서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며, 창조주의 신과 피조물의 구별을 반영한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의 사명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추구하기에 좋은 첨가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창조물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원래적이고 근본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6-28.

그러한 사랑과 봉사는 하나님, 자아, 문화, 창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일부로서 신학을 아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됨에 따라, 우리는 진리, 선함, 아름다움, 평화를 그 자체로 고귀한 목적이자, 하나님을 알고, 성찰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죄와 우리의 신학. 불행히도, 우리의 죄의 현실은 우리의 신에 대한 지식을 왜곡하고, 따라서 우리의 신학도 왜곡합니다. 인간은 신에게 반항하여, 신, 다른 사람, 우리 자신, 그리고 창조물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창세기 3장, 로마서 5:12-21.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죄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 평화, 아름다움을 적절하게 갈망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 그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죄는 우리의 정신, 애정, 태도, 의지, 행동에 감염되고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영적 죽음, 어둠, 강인함, 속박, 눈멀음과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러한 부패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7:20-23.

로마서 1:18-32. 로마서 3:9-20. 고린도후서 4:3-4.

에베소서 2:1-3. 에베소서 4:17-19.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학은 유한성, 편견, 문화적 근시안으로 특징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기심, 교만, 명예, 탐욕 또는 권력에 대한 갈증에 의해 주도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독교 학문도 이런 문제들을 반영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학. 다행히도,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며, 그는 우리가 신학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는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가장 충만하고 가장 분명한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1-18. 히브리서 1:1-4.

예수님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진리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4-18. 8-12.

14:6.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 심지어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우리의 충성과 복종을 받을 자격이 있고 요구하는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빌립보서 2:5-11.

그는 또한 우리를 그의 제자로 만들고 우리에게 투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가르치고 그의 교회와 공동체를 건설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 있다고 선포하시고, 그분을 증거하는 성경을 탐구하라고 촉구하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그분의 정체성, 기적, 가르침,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보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와 연결시키고, 오류를 바로잡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할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영생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정의하셨는데, 그분은 이를 진리로 특징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7. 요한복음 1:15-18.

요한복음 14:6. 그리고 17:3-17.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합니다(골로새서 2:3). 그 결과, 모든 진리, 그리고 모든 신학은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초점과 근원을 찾습니다. 사실, 모든 지식, 가르침, 직업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은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유지됩니다(골로새서 1:15-20).

우리 신학에서의 구원. 놀랍게도, 우리 신학은 신을 해부하거나 탐구하려는 추상적인 시도가 아닙니다. 신학은 언약적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반역을 인내심 있게 참으시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개인적입니다. 성경 이야기 속의 구원 교리는 이 진리를 강조하고, 그 진리에 비추어 기독교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으며 새로운 삶의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며 그분 안에서 의롭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증명할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과제는 우리의 정체성, 성장, 안전을 추구할 수 있게 하고 촉진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 신학 속의 성령.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성령께서 성경에 영감을 주셨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 영적 은사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학은 그 내용을 위해 성령에 의존합니다. 그는 성경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신학은 통찰력을 위해 성령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는 우리가 단어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신학은 교회적 맥락을 위해 성령에 의존합니다.

그는 교회를 시작하고 그 안에 거했습니다. 우리의 신학은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에 의존합니다. 그는 우리 교회 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신학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로 밀어넣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신학에서, 그의 죄 없는 삶, 대속적 죽음, 그리고 육체적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을 위한 백성으로 구속하십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진리로 표시됩니다.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으로 형성됩니다.

우리는 오류에 반대하고, 그분의 말씀의 공동체로서 함께 삶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특히 그분의 하나됨, 거룩함, 사랑, 진리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41~47, 에베소서 2:4~10, 4:1~24.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 있고 거룩하며 받아들일 만한 제사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써 변화됩니다. 로마서 12:1, 2, 에베소서 4:17-24. 그러므로 우리의 신학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개인적 노력이 아니라 삶 전체에 통합되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에서 추구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요구합니다. 인간성, 믿음, 은혜에 대한 의존, 타인에 대한 존중, 근면, 인내, 조심성, 끈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함께 삶을 나누면서 말씀 아래 공동체에서 신학을 함께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신학 속의 미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또한 신학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승리, 심판은 그분의 주권을 선언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입증하며, 우주의 정의와 평화를 영구히 확립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5~10, 요한계시록 20:10~15.

모든 거짓은 무너지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모두 영원한 지옥으로 추방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 성경의 마지막 세 장은 각각 새 하늘과 새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성경의 마지막 세 장 모두 지옥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개인적인 임재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었기 때문에, 새 땅은 그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 그의 거룩함과 우리의 거룩함, 그의 사랑과 우리의 거룩함, 그의 선함과 우리의 선함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저는 경건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역사는 선형적이고, 목적이 있으며, 우리의 선을 위해 종말론적이며,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39절, 에베소서 1장 3절~14절. 따라서 신학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과 그분의 선함, 사랑, 정의, 평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치 있는 과정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신학적 추구는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분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시력이 될 날을 갈망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9~12.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신학을 올바르게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에서 자랍니다. 하나님, 그분의 자기 계시, 창조,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예수, 예수의 사역, 구원, 성령, 교회, 그리고 마지막 것들이 모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놀랍게도 성경 이야기의 각 부분과 기독교 신앙의 각 진리는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실제로 우리 일상 생활의 모든 측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계시록과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3, 신을 아는 것과 성경 이야기와 신을 아는 것과 우리의 신학입니다.